

### 스페인 SPAIN



#### 포괄적인 여성 살해 데이터 수집정책 시행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초청연구원

- 스페인은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모든 여성 살해(femicide) 사건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데이터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여성 살해는 성폭행, 가정폭력, 여성혐오 등 다양한 이유를 기반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살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모든 유형의 여성 살해 사건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유럽에서 최초이다.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말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통계 데이터 분류에서는 이전 또는 현 배우자가 가하는 폭력, 성폭력 등외에 추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스페인 사법 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Judiciary), 유럽연합 산하 유럽 성평등 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 과거 스페인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 사회 및 언론 일각에서는 이를 치정에서 비롯된 범죄 정도로 치부하곤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여성 대상 살해를 형법에 어긋나는 엄연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다루기 시작하고 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점차 정부 당국 관계자, 언론인, 대중 전반의 인식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왔다.
- 최근 몇 년간 스페인에서는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여성 살해 사건이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6살 소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바다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페인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 이후 사법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1살 딸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두 딸의 친모이자 본인의 전 부인에게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스페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 "두 자매의 어머니가 겪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 같은 여성 대상 범죄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참고자료

- El Diario(2021.12.20), "España será desde enero el primer país europeo en contabilizar oficialmente todos los feminicidios", [https://www.eldiario.es/sociedad/espana-sera-enero-primer-pais-europeo-contabilizar-oficialmente-feminicidios\\_1\\_8595437.html](https://www.eldiario.es/sociedad/espana-sera-enero-primer-pais-europeo-contabilizar-oficialmente-feminicidios_1_8595437.html) (접속일: 2022.03.22).
- El Mundo(2017.11.07), "Sergio Morate, condenado a 48 años por los asesinatos de Laura y Marina", <https://www.elmundo.es/espana/2017/11/07/5a01dc01268e3e5d688b4608.html> (접속일: 2022.03.22).
- The Guardian(2021.06.11), "Discovery of girl's body prompts nationwide protests in Spai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jun/11/discovery-girl-body-prompts-nationwide-domestic-violence-protests-spain> (접속일: 2022.03.22).
- The Guardian(2021.12.31), "Spain says it is first in Europe to officially count all femicid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dec/31/spain-says-it-is-first-in-europe-to-officially-count-all-femicides> (접속일: 2022.03.22).

2015년에는 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여성 한 명을 죽인 살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과 헤어진 것에 살인을 계획하고, 함께 거주하던 집에 소지품을 가지러 오게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던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살해당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2017년, 법원은 검찰 측이 구형한 대로 징역 48년, 유가족에게 65만 유로(한화 약 8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사건 통계 데이터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피해자는 가해자와 서로 가까운 연인이나 가족 관계가 아니었기에 기존의 젠더기반폭력 및 살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참고로 스페인 정부가 2003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2021년 기준 약 1,125명의 여성이 이전 또는 현 배우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37명(2021년 11월 기준)이 이전 또는 현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페인의 기존 통계에서는 2003년부터 이전 또는 현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을 공식 집계해왔다. 이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포괄적으로 여성 살해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그동안 빠졌던 다양한 사건을 데이터에 포함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성적 착취에서의 여성 살해, 사적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하여 행한 살해 등이 있다. 또한 특정 여성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기 위해 해당 여성 주변의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을 살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일단 모든 여성 대상 살해 사건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 세부 범주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의 젠더폭력위원회(Government Delegation against Gender Violence)는 여성 살해 사건을 포괄하여 모니터링하는 분과위원회(Femicide Observatory)를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인 내 지역 당국들은 데이터를 젠더폭력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여성 살해 데이터를 모두 취합한 뒤 일정 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건들을 나누는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스페인의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Minister for Equality)은 이번 정책 방침에 대해 "모든 성차별적인 살해 사건 사례를 파악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여성 살해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철폐하는 정책들을 고안해내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제도는 젠더 기반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존 사적 관계 여부보다 남녀라는 성별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2004년, 스페인은 젠더 기반 폭력의 포괄적 예방을 위한 법(Constitutional Act 1/2004 of 28 December,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해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에서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교육,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 훈련 등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페인 형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일부 조항들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성 살해 개념을 확장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한국에서도 향후 주의하여 참고할 만하다.

- UN Women (2004), "Constitutional Act 1/2004 of 28 December,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 <https://evaw-global-database.unwomen.org/fr/countries/europe/spain/2004/constitutional-act-1-2004-of-28-december-on-integrated-protection-measures-against-gender-violence> (접속일: 2022.03.22).



## 낙태 금지법의 위헌 혹은 합헌 결정에 대한 논의

김 춘 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 내 미시시피(Mississippi) 주의 낙태 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18년에 개정됐으나 상소 법원의 제재 때문에 시행되지는 못했었다(New York Times, 2021). 현재 미시시피주(Mississippi) 낙태 금지법은 미국 대법원의 위헌 혹은 합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결정을 통해 1970년 Roe v. Wade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NPR, 2022).
- 1970년 미국 대법원은 Roe v. Wade를 통해 낙태 결정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다. Roe v. Wade의 판결에 따르면 임신초기(First trimester) 낙태 결정은 임신부 본인 및 담당 의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States)는 낙태 결정 여부에 규제할 수 없고, 임신중기(Second trimester)의 경우에는 임신부의 건강과 관련된 경우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임신말기(Third trimester)의 경우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Roe v. Wade, 1970). 하지만 올해 대법원이 미시시피주(Mississippi)의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지금보다 더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계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NPR, 2022).
- 낙태의 합법화 찬반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낙태가 “모든 혹은 대부분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중 의견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찬반 의견의 차이는 20년 전에 비해 뚜렷이 바뀌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Democrats) 지지자 중에서는 63%가 낙태가 “모든 혹은 대부분 상황”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현재는 이 수치가 80%로 올라갔다. 반면 공화당(Republicans) 지지자의 경우 2007년에는 39%가 현재는 35%가 낙태를 “모든 혹은 대부분 상황”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Haring, 2021).
- 현재 미국 내 여론의 추이와 대법원의 미시시피주 낙태법 합헌 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공화당이 주축을 이루는 주들은 이미 더욱 엄격한 낙태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주(Florida) 하원에서는 15주 이후의 낙태를 성폭행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었을 경우를 포함해서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으며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의 하원과 아리조나(Arizona)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이 통과된 바 있다(NPR, 2022).

### 참고자료

- Haring, H.(2021.05.06.), Abortion six-in-ten Americans says abortion should be legal in all or most cas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05/06/about-six-in-ten-americans-say-abortion-should-be-legal-in-all-or-most-cases/ft\\_2021-05-06\\_abortion\\_01/](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05/06/about-six-in-ten-americans-say-abortion-should-be-legal-in-all-or-most-cases/ft_2021-05-06_abortion_01/) (접속일: 2022, 3, 8).
- NPR(2022.02.17.), Florida House approves a ban on most abortions after 15 weeks. <https://www.npr.org/2022/02/17/1081450530/florida-house-abortion-ban> (접속일: 2022, 3, 8).
- Roe v. Wade.(n.d.). Oyez. Retrieved March 8, 2022, <https://www.oyez.org/cases/1971/70-18>
- NPR (2022, 1, 21). Americans are divided on abortion. The supreme court may not wait for minds to change.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2/01/21/1074605184/abortion-ro-v-wade-supreme-court> (접속일: 2022.03.08).
- The Texas Tribune(2021.08.31.), <https://www.texastribune.org/2021/08/31/texas-abortion-law-supreme-court/> (접속일: 2022.03.08).
- NPR (2022, 3, 2). The new Texas abortion law is putting some patients in danger. <https://www.npr.org/transcripts/1083990987> (접속일: 2022.03.09).

📌 텍사스(Texas)의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Senate 8 Bill(S8)이 개정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S8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여, 응급 상황을 제외한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가 불가능하다(The Texas Tribune, 2021.08.31). 텍사스 내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는 이 법이 Roe v. Wade에 따라 위헌이라는 상소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로 텍사스에서 이 법을 어기고 낙태를 실행하는 의사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S8 법이 시행된 이후로 텍사스에서 실행되는 낙태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엄격한 낙태법이 여성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침해 (성·재생산권)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의 S8의 6주 낙태 금지의 경우 많은 여성이 임신 6주의 경우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며 이것은 엄연히 여성의 성·재생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태아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태중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게 했기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임신부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서 시술받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비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도 클 뿐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임신부의 건강 혹은 생명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NPR, 2022). 또한 여성이 낙태를 원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술을 거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다양한 추후 문제도 여성이 오롯이 감당하고 겪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디아니 그린 포스터(Diana Greene Foster) 박사는 10년 동안 30개의 병원의 1000여 명의 환자중 본인이 원해서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 가능한 시기를 놓쳐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의 추후 신체 및 정신 건강,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낙태 시술을 한 여성의 경우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에 비해 그들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월등히 좋았으며 그들의 경제 상황도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NPR, 2022). 따라서 낙태 결정 여부는 본인이 내려야하는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를 위한 정부 대응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4차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T기술)이 기반이 된 직종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기존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이하 STEM)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IT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여성들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영국에서 IT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27%이며, 이는 예년에 비해 2%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고위직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5%밖에 안 되며, STEM 분야의 학생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22%밖에 안 된다. 영국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보건 의료, 유통, 행정업무 분야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기에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영국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

영국 정부는 4차 혁명 시대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IT 기술/인공지능 분야와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여성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미래인재 교육, 기존인력 복직지원, 그리고 여성의 STEM 분야 종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① 영국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여학생 컴퓨터공학 교육인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 (Gender Balance in Computing)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고용시장에 진입할 여학생들의 기술산업 역량강화 교육정책, ② STEM 분야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복직을 위해 여성부에서 2022년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한 '새로운 STEM 복직자 이니셔티브'(New STEM 'Returners' Initiative), ③ 정부 부처에서 여성의 STEM 분야 종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여학생 컴퓨터공학 교육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오랜 시간 학업과 노동시장의 STEM 분야에서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꼽는다. 그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식개선을 통해 IT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여성들 진출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영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5-16세 여학생들이 컴퓨터공학(Computing Science)에 대한 관심과 필요한 역량을 교육받을 수 있는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 (Gender Balance in Computing)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24만 파운드 (약 38억 원)를 지원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요조사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국 550개 학교의 1만 5천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본 연구 및 프로그램은 영국에 있는 여러 IT와 STEM 관련 재단 및 연구소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 참고자료

- Open Access Government (2022.03.08.), "Making way for more women in digital transformation", <https://www.openaccessgovernment.org/women-in-digital-transformation/131062/> (접속일: 2022.03.17).
- Evening Standard.(2019.04.30.), "UK government announces £2.4 million investment to encourage more girls into computing", <https://www.standard.co.uk/tech/uk-government-2-4-million-gender-balance-in-computing-a4129976.html> (접속일: 2022.03.17).
- Siân Herbert(K4D)(2017.11.30.), "Digital development and the digital gender ga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5f228f40f0b652634c6f4a/249-Digital-development-and-the-digital-gender-gap.pdf> (접속일: 2022.03.17).
- MOJ.GOV.UK (2021.01.18.), "Women in Technology", <https://mojdigital.blog.gov.uk/2021/01/18/women-in-technology/> (접속일: 2022.03.17).
- DWP.GOV.UK (2021.10.11.), "Our pledge to redress the gender balance", <https://dwpdigital.blog.gov.uk/2021/10/11/our-pledge-to-redress-the-gender-balance/> (접속일: 2022.03.18).



본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수업 접근법(Teaching Approach)은 컴퓨터 공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또래 교육, 멘토링 수업,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수업에 적용한다. 둘째, 소속감(Belonging)은 여학생들이 컴퓨터공학 분야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롤모델과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상담을 진행한다. 셋째, 비형식적 배움(Informal Learning)은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과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직업 기회를 연결하여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 넷째, 관련성(Relevance)은 교사들이 컴퓨터 공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과목 선택과 선택지 자료(Subject Choice and Options Materials)는 여학생들이 컴퓨터 공학 과목을 선택하고 관련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해당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의 기초를 다진다.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Gender Balance in Computing) 시범사업은 이 2022년 말에 마무리된다. 3년간의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여학생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소 2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고자 한다. 향후 본 사업과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STEM, IT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사업이 성별 격차 해소로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기존 4차 산업 종사 여성을 위한 복직지원 프로그램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영국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이다.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STEM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25개의 STEM 분야 여성복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번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이 설계될 것이다.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들이 무임금 가사 노동과 육아에 압도적으로 치중하는 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팬데믹 이후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을 향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STEM 분야의 여성 중 61%가 복직을 어렵하다고 2021년 STEM 복직자 조사(2021 STEM returners index survey)이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 시행 배경을 설명한다.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STEM 분야에 복직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최소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본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여러 기관에서의 시행 여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Workingmums. “Government should ensure women have digital skills they need”, <https://www.workingmums.co.uk/government-should-ensure-women-have-digital-skills-they-need/> (접속일: 2022.03.18.)
- ITPro(2022.02.22.), “Tech roles held by women increased by just 2% in 2021”, <https://www.itpro.co.uk/business-strategy/careers-training/362710/tech-roles-held-by-women-increased-2-in-2021#:~:text=The%20number%20of%20women%20in,2020%20to%2027%25%20in%202021> (접속일: 2022.03.20.)
-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and Media.(2021), “Closing the STEM Gender Gap”, <https://seejane.org/wp-content/uploads/closing-the-stem-gender-gap-uk-report.pdf> (접속일: 2022.03.20.)
- Computer Weekly.(2021.10.22.), “Women more likely to have retrained for tech roles than men”,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508548/Women-more-likely-to-have-retrained-for-tech-roles-than-men> (접속일: 2022.03.20.)
- Tech Computing <https://teachcomputing.org/gender-balance> (접속일: 2022.03.23.)
- DWP.GOV.UK (2021.03.08.), “Celebrating our Digital Voices on International Women’s Day”. <https://dwpdigital.blog.gov.uk/2021/03/08/celebrating-our-digital-voices-on-international-womens-day/> (접속일: 2022.03.22.)
- Manchester Digital.(2021), “DWP Digital to host a Virtual Recruitment Evening this month”, <https://www.manchesterdigital.com/post/dwp-digital/dwp-digital-to-host-a-virtual-recruitment-evening-this-month-1> (접속일: 2022.03.22.)

## 여성의 4차 산업분야 종사 인식개선 캠페인

 고용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여성들이 4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지나 데이비스 젠더와 미디어 연구소(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and Media)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에서의 STEM 분야 종사자는 61%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위의 결과가 실제 영국에서 STEM 종사자가 남성으로 대표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관련하여, 영국 고용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여성들의 활발한 STEM 분야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목소리(Digital Voices)와 디지털 고용 캠페인(Digital Recruitment Campaign)과 같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목소리(Digital Voices)는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은 매년 STEM 분야에 대한 여성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선정한다. 여성들의 자신감 고취와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4년째 운영 중이다. 또한, 디지털 고용 캠페인 (Digital Recruitment Campaign)을 통해 여성들의 STEM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남성에 치중한 해당 분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용 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STEM 분야 여성 대표를 초대하여 직업박람회를 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분야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식개선 플랫폼과 캠페인이 영국에서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실제 인식개선과 여성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